송원대, 철도아카데미 철도종합실습실 개소

송원대학교가 미래 철도산업을 이끌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사진)

송원대는 2일 학교 청솔관 1층에서 철도종합실습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철도운전관제시스템학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송원대 고경주 이사장, 최수태 총장을 비롯해 대아티아이㈜ 이명철 사장, 한국철도공사, 광주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유관기관과 한라대, 동양대, 우송대 등 전국 철도 관련 대학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철도종합실습센터는 제2종 철도차량에 적용되는 주요 장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 부품과 승강장안전문(PSD), 선로전환기, 철도차량 연결기 등 철도 현장 중심의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은 전기기관차 운전실습장비도 함께 설치됐다. **최동환 기자**

광주본동물병원 산불피해 돕기 전직원 참여

광주본동물병원(구 본펫동물병원) 원장들과 간호사들이 최근 의성, 울산 등 경북·경남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사진)

2일 광주본동물병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병원 임직원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에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인명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직원들은, 이들을 위한 긴급 복구와 구호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

신상윤 원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동물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대, 하정웅 명예관장 초청 콘서트

광주교육대학교는 지난달 31일 하정웅 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을 초청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사 초청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하정웅 명예관장은 재일동포 출신의 메세나 운동가로, 전국 10여 곳의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및 대학 기관에 1만2000여점의 미술작품과 역사 유물을 기증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건립과 복지 증진에 힘써 '맹인들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이번 명사 초청 콘서트에는 100여명의 초청 내·외빈과 예비교사들이 참석했다.

하 명예관장은 특강에서 '인간의 가치 있는 삶',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재일동포로서의 삶과 미술품 수집의 계기' 등을 회고하며, 메세나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사람 간의 배려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개발공사, ISO 31000 인증 획득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리스크관리경영시스템(ISO 31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ISO 31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경영 및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관리 의지 표명,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경영매뉴얼 수립, 리스크 관리 조직 운영 및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경영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원가 급등과 같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주거복지 향상,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전남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번 인증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조달청, 레미콘 안정 공급 수급협의회

광주지방조달청은 2일 광주·전남지역 관급 레미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관공동수급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의회는 관급공사 현장에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납품제' 시행에 선제적 준비를 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광주시 등 주요 수요기관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레미콘 생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관내 중요공사 현장 결정, 우선납품에 관한 사항, 레미콘 수급 차질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납품제는 레미콘 수급불안 상황 발생 시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공사 현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중요공사현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제도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논의를 바탕으로 관급레미콘의 수급안정화와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산소방,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당부

광주 광산소방은 2일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사진)

광산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광주시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은 봄철에 103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96건(55.4%), 그 중 담배꽁초 부주의가 39.9%를 차지했다.

이에 광산소방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금지, 담배꽁초 불씨제거 후 안전한 곳에 처리하기, 음식물 조리 취급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봄이라는 계절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원장 고도경 △고등광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성구

전남도체육회, 2025 상반기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교육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남도 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스포츠클럽, 유관기관 등의 행사 주최자 및 관리책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상반기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를 준수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규모 체육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체육회는 이날 교육을 통해 체육관계자 및 행사 담당자들의 안전 관리 능력이 향상돼 전남도를 비롯한 각종 행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포츠안전협회 소속의 류승민, 김진훈 강사를 초빙해 이뤄진 교육에서는 스포츠 행사 주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과 운영, 재난사고 대응 및 안전점검 실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과 대처 방안, 관련 법규 및 규정 이해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교육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주요 대회 개최를 앞두고 전남도체육회가 타시·도체육회 대비, 체육 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도 모든 체육행사에서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문화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스포츠안전협회로부터 수료증을 받는다. **최동환 기자**

전국 여성리더, 전남도 '복지기동대' 벤치마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생 운영성과·지역 돌봄 등 살펴

전남도는 2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리더양성과정에 참여 중인 전국 시군 팀장급 공무원 22명이 도청을 방문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사진)

여성리더양성과정 교육생들은 이날 지역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복지기동대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성과를 살피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 돌봄 서비스와 민관협력 모델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구상했다.

벤치마킹에 나선 박 모 팀장은 "전남도의 복지기동대는 지역 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 복지 모델"이라며 "지역돌봄 서비스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2019년 4월 출범한 복지기동대는 현재 전남 시군과 읍면동 전체 319곳에서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전남 전체 가구의 24%에 해당하는 22만6000여 가구를 지원했다.

또한 출범 당시 2000여명이었던 복지기동대원 또한 현재 4700여명으로 확대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복지기동대'란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 출신 국회의원도 전남도를 방문하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복권기금 지원으로 인해 더욱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올해는 약 33억3000만원의 복권기금이 저소득·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 복지 증진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기동대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복지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복지기동대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